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en.

- 새가족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 김하은 박다영 이정원 이훈호 장하선 황희준 이승주 이재성 이드림 김도아
- 2022년 서리집사 서약서를 오늘(11월 7일)까지 구역장님들께 사인 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에 섬기실 각 부서장님과 구역장님 임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부 수련회가 11/12-14(금-일)까지 있습니다.
주제: 청년아! 너의 믿음을 고백하라 / 장소: Rheintal-Jugendherberge Oberwesel
- 오늘 예배 후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 별관)
- 다음 주 BTS2는 제직회 일정으로 오후 4시에 시작됩니다.
- 11월 제직회가 다음 주일 (14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전교인 성경퀴즈 대회(로마서-갈라디아서)가 11월 28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 하반기 성경필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11월말 까지)

Freue dich über den HERRN, und er wird dir geben,
was du dir von Herzen wünschst (Psalm 37:4)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4)

제36권 45호 2021년 11월 7일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 주일예배 1부 오전 12:30 인도자 :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408 장	다함께
※ 신앙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시 교독	Wechsellesung	17 문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장혜정 권사
봉 헌	Kollekte	85 장	다함께
성경 봉독	Schriftlesung	마가복음 5:22-43	인도자
찬 양	Lobpreis	내 주의 보혈은	성가대
말씀 선포	Predigt	여인의 손과 주님의 손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 찬 양	Schlusslied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다함께
※ 축복 기도	Segen		한성호 목사

✠ 수요기도회 수요일 20:00 본당 예배 한성호 목사

섬김이		예배 위원			교회 후원 선교지
담당목사	시무장로	날 짜	기 도	안내	
한성호	소병찬	11.07	장혜정	홍근희, 김윤정	• 키르키스탄(다니엘 P)
교육전도사	이정수	11.14	박윤순	배형만, 엄선형	• 코소보(S00)
장재성	이태성	11.21	김윤정	유정훈, 박윤순	• 독일 쾰른(N00)
		11.28	신진욱	장은준, 박정애	• 케냐(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고린도전서 6: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Korinther 6:20 Denn ihr seid teuer erkauft; darum preist Gott mit eurem Leibe.

예배안내

주일예배 주일 12:30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20:00 본당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주일 12:30 별관

청소년부예배

유년 / 초등 주일 12:30 별관

청년부예배

주일 12:30 별관

금요일 12:00 본당

종교개혁 그리고 마인츠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일을 기념하여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흔히 독일에서의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한 비텐베르크 혹은 루터가 재판을 받았던 보름스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신앙 생활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이 곳 마인츠를 종교개혁의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에 있어서 마인츠라는 도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반박문 게재의 직접적인 계기로 소위 „면죄부“ 판매를 지적합니다. 상업의 발달과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교황 Leo 10세는 바티칸 성당 개축 등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면죄부 판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당시 마인츠 대주교였던 Albrecht von Brandenburg입니다. 당시 종교법상 경직이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인츠 외 몇몇 지역의 주교를 경직하기 위하여 로마 교황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던 그는 독일에서의 면죄부 판매 전체를 관장하는 것을 넘어 판매액의 절반을 자신의 주머니로 착복하게 됩니다.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혈통에 따라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선제후들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황제 선출을 위한 회의의 소집의 권한을 바로 마인츠 대주교가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만약 양쪽 표가 동일할 경우 그가 지명한 사람이 황제가 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인츠 대주교는 1520년 독일어를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스페인 출신 카톨릭 교도인 Karl 5세를 황제로 삼아 개혁 운동을 저지코자 하였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함께 민족적 /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몇몇 제후들이 Karl 5세의 반개혁적인 조치에 반항하였고, 그 결과 1521년 Speyer 제국의회를 계기로 새로운 개혁 운동은 „Protestant“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초대 교회 성립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인“라는 이름이 처음 불리었던 것과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조그마한 한 도시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한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에 의해 게재된 종이 몇 장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물줄기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잘 아시다시피 루터의 반박문과 번역된 독일어 성경이 그토록 급속히 확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마인츠에서 태어난 Gutenberg에 의해 발명된 금속활자에 기인합니다.

이처럼 마인츠라는 한 도시는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빛으로 밝게 퍼져나가는 데에 있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비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순간에도, 그 개혁운동이 „Protestant“라는 저항운동으로 확산되는 전환의 순간에도, 그리고 그 개혁운동이 시작되기 70년 전 이미 성공의 토대가 준비되었던 순간에도 마인츠라는 도시는 조용히 그 사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인츠에서 말씀을 찾아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그 믿음의 촛불이 작지만 밝게 빛 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다시 오심 ::

Even if there is a strange cloud in the far sky,
I look to see if today is the day that the Lord is
coming back and wonder, "Oh, Lord, when are
you coming back?"
- Son Yang-won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올바른 재림의 준비는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아는데 있지 않습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거부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삶은 일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 도 제 목

- ❖ 2022년 각 부서장과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교사들, 구역장님들이 성령충만, 말씀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영적 부흥과 성장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 ❖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나승필, 박다니엘, 백경진, 서원민, 이만민, 이재은, 이정호선교사님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고 사역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의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